한복을 입고 세배하는 아이들. 한라일보DB

세월 바뀌어도 따뜻한 '설'… 함께 나눠요

새해인사·떡국 먹기·연날리기·복조리 걸기 등 풍속 이어져
수난의 역사 겪었던 설… '민속의 날' 지정 후 이름 되찾아
제주서도 '정월 멩질' 분주… 동네 곳곳 돌아다니며 복 기원

세월이 바뀌어도 '설'은 따뜻하다. 웃어른에게 세배하고 정성껏 차린 음식을 먹으며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는 풍경은 더없이 정겹다. 명절이면 집집마다 북적이던 모습은 옛일이 됐지만, 설을 맞는 마음만은 여전하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 한 해도 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또 한 번의 설을 맞는다.

▶베풀며 복 기원한 민족 고유 명절=설날의 유래는 명확하지 않다. 음력 1월 1일 설 명절이 역법을 따르는 것을 보면, 적어도 6세기 전 중국에서 태양태음력을 받아들인 이후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설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7세기 중국 역사서 '수서'와 '구당서'에서 만날 수 있다. "매년 정월 원단에 서로 경하하며, 왕이 연희를 베풀고 여러 손님과 관원들이 모인다. 이날 일월신을 배례한다"는 기록은 왕권 국가인 신라의 설 관습을 보여준다.

한 해 첫 달인 정월은 각별히 여겨졌다. 신라에선 시조묘에 제사를 지내고 죄수를 풀어줬으며, 고려에서도 왕이 천지신과 조상신에 제사를 지내는 세시의례가 이어졌다. 베풂도 함께했다. 고려시대 왕은 관리에게 7일간 휴가를 주고, 신년축하 예를 올리는 신하를 위해 잔치를 열었다.

설의 세시풍속은 고려에서 자리를 잡아 조선시대로 이어졌다. 이 시기 나온 '동문선' 등의 문집에는 정월 초하루 새해 인사, 연하장 보내기, 악귀를 쫓는 부적 붙이기 등 여러 모습이 담겼다. 오늘날 설 풍속과도 비슷하다.

옛 사람들은 설이면 몸가짐을 더 삼가고 조심했다. 액운을 연에 실려 날려보내고, 한데 어울려 윷놀이, 널뛰기 등의 놀이도 즐겼다. 묵은 때를 버리고 나이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의미로 떡국을 먹고, 복을 기원하며 복조리를 걸어두기도 했다.

지금의 설 명절이 있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1895년 을미개혁으로 양력 1월 1일이 설이 되고, 일제강점기에 음력설을 쇠는 것이 억압된 탓이다. 해방 이후에도 1980년대 중반까지 음력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맘때면 어김 없이 민족 대이동이 이뤄졌다. 이에 정부는 1985년 음력설을 '민속의 날'로 정했고, 1989년엔 설날이란 이름을 되찾게 됐다. 그해부터 설은 지금과 같은 사흘간의 연휴로 이어지고 있다.

▶'정월 멩질' 풍경이 전하는 정겨움=예부터 제주에서도 정월 초하루면 '정월 멩질'로 분주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미리 준비해 둔 멩질 옷으로 갈아입고 집집이 다니며 멩질 먹기 바빴다.

다른 명절이나 제사와 달리 정월 멩질에는 세배가 따랐다. 차례를 지내고 세배를 하고서야 음식을 나눠먹었다. 집안 세배가 끝나면 동네 어른을 찾아다니며 인사를 했는데, 상중인 집이 있을 땐 그곳을 먼저 찾아 영혼에게 절하고 상주를 위로한 뒤에 동네를 돌아봤다. 가족 수가 줄고 명절 문화가 간소화되면서 이러한 모습은 보기 어렵지만, 설이면 한 해 복을 기원하는 마음은 지금도 같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며 서로서로에게 건네는 인사는 설을 풍성하게 채운다. 새로운 해에 희망도 불어넣는다. 따뜻한 덕담을 나누며 가족은 물론 이웃의 안녕까지 함께 바랐던 옛 제주사람들의 모습이 오늘을 돌아보게 한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 온세상의 정토구현을 위한 하나되는 붇다인!!! "

사단법인 붇다클럽 2020년 제53차 정기총회 및 총회장 이·취임식

귀의 삼보하옵고, (사)붇다클럽 정기총회 및 총회장 이 · 취임 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27·28대 김태문 총회장(이임) 제29대 조건형 총회장(취임)

사단법인 붇다클럽 이임회장 김 태 문

사단법인 붇다클럽 취임회장 조 건 형

자랑스러운 붇다인 역대총회장: 강창식 홍재만 김정부 양천익 김영식 허익선 채승철 김봉근 이영근 김성배 송원식 양방규 강경호 정승익 오홍식 김영식

직전총회장: 김 태 문
총 회 장: 조 건 형
차기총회장: 양 창 수
내부부회장: 정 삼 천
사무총장: 문 성 흠
외무부회장: 고 제 헌
부회장: 이승훈 신창식 강규진 김성익 강성남 윤춘철 양정두 임계령

총무국 국장 양정욱 부장 김신덕
재무국 국장 김병희 부장 김철우
조직국 국장 박용찬 부장 조영구
연수국 국장 박기정 부장 강종우
홍보국 국장 고동환 부장 박성환
봉사국 국장 한예존 부장 이수원
문화체육국 국장 오봉헌 부장 김재범
대외의전국 국장 강계영 부장 이형근

백록회 회장 고도현 부회장 오희부 사무국장 양윤철
영주회 회장 고창호 부회장 이종근 사무국장 한경호
한라회 회장 부영주 부회장 강승훈 사무국장 진동일
천지회 회장 송성봉 부회장 강경진 사무국장 진영기
탐라회 회장 한보유 부회장 고수봉 사무국장 양정남
반야회 회장 한정권 부회장 고경우 사무국장 임호진
정방회 회장 고인국 부회장 양남호 사무국장 고종화
금강회 회장 김상보 부회장 최병수 사무국장 이대복

클럽이사: 조건형 김태문 양창수 정삼천 고제헌 이승훈 신창식 강규진 김성익 강성남 윤춘철 양정두 임계령 문성흠 양정욱 김병희 정남진 김문수 유남희 김홍익 강성봉 김부용 강정배 고도현 고창호 부영주 송성봉 한보유 한정권 고인국 김상보 양윤철 진동일 진영기 양정남 임호진 고종화 이대복

정기총회 일시 : 불기2564(2020)년 1월 31일(금) 오후 5시
이·취임식 일시 : 불기2564(2020)년 1월 31일(금) 오후 7시
장 소 신제주 메종글래드 1층 컨벤션홀
연락처 (사)붇다클럽 사무국: 064-751-1080

신입회원 가입안내 ●자격 제주도내 거주하는 기혼남성 불자 만 55세 미만 ●가입방법 회원추천 및 직접가입 가능 ●가입문의 제주시 동광로 80 현원아트빌 304(3층) ●전화 064)751-1080 ●팩스 064)757-8287